

“노조파괴 컨설팅 LAB파트너스는 현장 떠나라”

LAB파트너스 규탄, 현담산업 민주노조 시수 결의대회 ... “노조파괴 컨설팅업체 사라질 때까지 싸우겠다”

금속노동자들이 다시 제조업현장에 나타난 ‘노조파괴 컨설팅업체’에 노동 삼권을 무시하는 반헌법 자문을 그만두고 당장 떠나라고 명령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LAB파트너스 사무실 앞에서 ‘LAB파트너스 규탄, 현담산업 민주노조 시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 파업을 벌이고 상경한 충남지부와 경주지부 현담산업지회 조합원들과 두 지부의 확대간부들이 참가했다.

정원영 노조 충남지부장은 대회사에서 “노조파괴 컨설팅을 받은 충남지역 자본들은 100억 원 넘는 돈만 날렸다. 노사관계는 파탄 나고 회사는 망가져 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현담산업 자본에 경고했다.

정원영 지부장은 “관리직들이 노조파괴 관련 시나리오가 있다는 여러 제보를 했다. 컨설팅업체의 자문 없이 시도할 수 없는 내용이다. 금속노조는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밝히기 위해 파업을 벌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담산업은 지회가 지난 2월 금속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자 LAB파트너스라는 법무법인과 계약하고 노무 자문을 받고 있다. LAB파트너스는 홈페이지에 “특히 오랜 기간 국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며 쌓은 전문법률지식, 업무수행 노하우와 국내 최고 기업 법무실 및 그룹 준법경영실에서 경험한 기업 시각에서의 문제 접근 방식, 대응 및 해결 방식을 결합하여 고객에게 법률적 안정성을 담보한 새로운 차원의 성공 기업 경영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다.

김규현 충남지부 현담산업지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철야농성 50일, 파업 150시간이 넘었다. 자본이 오판해 LAB파트너스를 끌어들이며 교섭이 길어지고, 노사관계가 파탄나고 통받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규현 지회장은 “이러지도 저러

지도 못하던 사측이 추가 교섭을 제안해왔다. 지회는 사측이 수작을 부릴 때마다 투쟁으로 대응해 이겨왔다. 우리는 지부와 노조의 지도와 연대 속에 노조파괴 컨설팅업체가 사라질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결의했다.

이주호 경주지부 현담산업지회 노동안전·조직부장은 투쟁사에서 “LAB파트너스는 헌법 33조 노동 삼권과 ‘변호사는 기본적인 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는 변호사법 1조를 각인하라. 노조파괴 자문을 중단하고 사죄하라”라고 호통쳤다.

대회 중간에 두 지회장과 충남지부 대표가 LAB파트너스 대표 면담을 위해 사무실에 올라갔으나, 이들은 “현담산업 관련 담당변호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노조 충남지부는 “LAB파트너스가 충남에 다시 나타나 노조파괴를 자문하고 지휘하면 금속노동자들은 이들을 주적으로 삼고 타격할 것이다. 우리가 다시 이곳에 모이지 않도록 현장에서 나가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윤여철 가이드라인, 노사관계 파행·임금인상 통제 주범

노조 현대차그룹사 대표자 규탄 기자회견 열어... “미타결 사업장 자율교섭·성과분배 보장하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그룹 열두 개 계열사 가운데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와 경기지부 현대케피코지회, 충남지부 현대엠시트지회, 경남지부 현대비앤지스틸지회, 포항지부 현대중합특수강지회가 아직도 올해 임단협 교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양재동 본사 가이드라인’ 때문에 계열사 노사 간 자율교섭이 막혀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현대차그룹사 노조 대표자들은 10월 10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계열사 교섭 방해하는 윤여철 가이드라인 철폐 촉구 그룹사 노조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룹사 노조 대표자들은 “윤여철 부회장이 주도하는 가이드라인 때문에 각 계열사 사측 대표들이 눈치를 보며 교섭에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노조 현대차그룹사 대표자들은 ▲양재동 본사 가이드라인 철폐 ▲그룹계열사 노사 간 자율교섭 보장을 요구하며 “현대차그룹이 노조의 요구를 받지 않으면



총파업 등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올해 여름휴가 전 타결을 목표로 단체교섭을 벌였다. 현대차와 기아차 지부 등은 올해 임단협을 타결했지만, 철강업종과 일부 자동차부품 계열사는 완성사 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는데도 ‘양재동 본사 가이드라인’ 때문에 교섭이 파행하고 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자동차산업 전망이 밝지 못한 상황에서 고민을 거듭해 현대차지부 임단협을 여름휴가 전 타결했지만, 현대·기아차그룹은 여전히 가이드라인을 철폐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호규 위원

장은 “현대·기아차그룹은 아직 임단협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의 자율교섭을 보장하라. 그렇지 않으면 금속노조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경고했다.

이경연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현대제철 매출과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임금과 상여금은 거꾸로 줄고 있다. 윤여철 부회장이 현대차만큼 줄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2차, 3차 총파업을 경고했다.

하부영 노조 현대차지부장은 “계열사 가이드라인으로 계열사는 물론 다른 부품사와 노조 없는 사업장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지속하면 대기업과 중소·영세 노동자 사이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진다”라고 비판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미타결 사업장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 거둔 성과만큼 임금인상과 성과분배가 이뤄지도록 연대해 투쟁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임태수 레이테크 사장 모든 행동 부당노동행위다”

노동법률 전문가들, 임태수 처벌 촉구... 서울노동청, “레이테크 사건 기소의견 검찰로 넘긴다”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노동법률 전문가들이 임태수 레이테크 사장이 부당노동행위 등 현행법을 어겼으며, 철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서울지부가 10월 1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불, 여성 노동자 인권 유린

레이테크코리아 임태수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법률 단체들은 임태수 레이테크코리아 사장의 부당 전환배치와 상식 밖의 업무지시, 징계 협박 등의 행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수 범죄행위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오늘 기자회견 뒤 노조 서울지부에 레이테크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노동청은 레이테크 임태수 사장이 ▲노동조합와 ▲노조의 정의행위 중 외주화 진행 ▲근로기준법 상 폭행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노동청은 이 같은 혐의로 이번 주 내에 레이테크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밝혔다.